

I. 獨逸과 美國의 經營經濟學의 發達

Horst Albach*

*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Bundesrepublik Deutschland.

I. 獨逸과 美國의 經營經濟學의 發達

1. 研究範圍

지금 이 시점에서 西獨과 美國의 經營經濟學이 어느 水準에 도달하고 있으며 經營經濟學의 内容과 使命에 대하여 어떻게 서로 다른 見解를 가지는가를 비교하려면은 經營經濟學의 獨自的이고도 科學的인 原理 (Disziplin) 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原理들이 어떻게 經營經濟學에서 統合되어 지는지를 說明할 必要가 있다. 비록 거의 같은때 即 19세기 말엽에 生成한 양국의 現代經營經濟學이 二次大戰 終末까지 많은 部分이 獨自的으로 成長하였다고 하더라도 現代 經營經濟學의 發展 過程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一般的으로 兩國의 출발점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현저한 차이란 美國의 經營經濟學이 그 成立 過程에서부터 많은 工學者, 정확하게 말해서 產業工學者들에 의하여 創設者로 代表되었으며 經營經濟學의 實際와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產業技術的인 方向에서 重點的으로 다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初期 經營經濟學者들은 勞動經濟學의 實事問題와 같은 生產經濟的이고 產業技術的인 過程을 經營經濟學의 對象으로하여 主로 다루어 왔다. 反面에 獨逸의 經營經濟學者들은 많은 사람이 經濟學者였으며 매우 理論的인 思考方式을 가졌다. 따라서 그들의 研究方向도 國民經濟學이나 經濟技法과 會計理論에서부터 新生學問인 經營經濟學의 새로운 原理 (Disziplin) 을 정립하였다.

이와같은 사정하에서 처음부터 獨逸과는 전혀 다르게 企業問題를 다루는 經濟學의 한 部分이 美國에서 發達하였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美國의 經營經濟學이란 從前에는 美國에 存在하지 않았던 嚴格히 限定된 專門分野를 말한다.

그리고 이 科學的 領域은 끊임없이 企業經濟的 要求에 依하여 決定되었고

다. 좋은 예로써 営利企業의 管理와 組織의 學問이란 見地에서 Management의 發展은 이와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여 준다.

2. 獨逸 經營經濟學의 發達

美國과는 달리 獨逸에서는 經營經濟學에서 두개의主流를 알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1920年代에 一般 經營經濟學의 綜合的인 시스템을 達成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1898年 아래 實際問題의 解決方法과 應用을 目的으로 하여 商業高等學校 (Handels hochschoo l)에서 "私經濟學 (Privat-wirtschaftslehre)" 이란 名目으로 가르치던 서술적으로 說明된 技術學을 대체하려 하였다. 위에 말한 理論的인主流의 發展은 슈미트 (Schmit), 리거 (Rieger) 또는 니크니쉬 (Nicknisch)와 같은 學者들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지금 위에 말한 學者들이나 그 後進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研究의 기틀내에서 國民經濟學과 經營經濟學의 範圍問題를 놓고 심한 論爭이 벌어졌다. 이 論爭을 특히 國民經濟學에서 活用하고 있는 研究方法의 應用問題까지 번졌으며 1950年代의 굿텐베르크 (Gutenberg)의 經營經濟學의 綜合的 콘셉트에까지 연장되었다.

다른 한主流는 1957年¹⁾ 굿텐베르크 (Gutenberg)의 業績以後 또 다시 세 개의 特殊分野로 分類될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은 研究結果로 獨逸의 經營經濟學은 完全히 새로운 科學的인 面을 보여 준다.

위에 말한 첫번째 分野란 世界第一次 大戰後 獨逸의 비참한 인플레이션下에서 자라났으며 貨幣價值變動을 企業의 統制裝置를 通하여 어떻게 올바르게 處理하느냐는 것이였다. 따라서 이 分野에서 要求되는 것은 革新的인 會計制度이며 이 革新的인 會計制度란 貨幣價值 變動이 없을 때 企業運營에서 전과 마찬가지의 能力を 가진 用具 即 새로운 會計制度의 정립이였다.

이와같은 任務의 理論的 分析으로부터 經營經濟學의 貸借對照表論이 發

生하였다. 이 貸借對照表論에 공헌한 몇몇 學者만 말한다면 시몬(Simon), 슈바렌바하(Schmalenbach)와 슈미트(Schmidt) 같은 學者를 들 수 있다.

두번째 特殊分野에서는 原價變動을 決定하는 要因들을 규명하는데 그 研究의 目的이 있었다. 특히 固定費와 操業度에 影響을 받는 原價의 研究에 그 力點을 두었다. 여기에서도 이미 1899年에²⁾ 正比例費, 固定費, 遞減費, 遞增費를 區別한 슈마렌바하(Schmalenbach)의 業積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恩師 뷔허(Bücher)와 함께 經營經濟學的 生產論과 原價論의 發展에 이바지한 決定的인 公현을 또한 저버릴 수 없다.

세번째 特殊分野에서는 企業의 販賣業務의 發展傾向을 보다 명확히 한 굿텐벨크의 마켓팅領域이다.³⁾ 工業製品의 販賣組織, 廣告 그리고 市場調查에 關한 研究는 그후에 무엇보다도 뉴텐벨크學派(Nürnberger Schule)에 의하여 成立된 經營經濟學의 販賣論의 基礎가 되였다.

3. 歷史的인 重點

이로써 獨逸의 經營經濟學의 學問的인 競爭에서 이미 두 分野에서 앞서 있음을 말하였다. 우선 貸借對照表의 本質, 内容 그리고 任務에 관한 學問이란 의미에서나 貸借對照表의 根本인 評價原則이란 뜻에서 貸借對照表論은 獨逸이 앞서 있으며 더욱이 이 理論은 "인플레이션會計"의 理論을 内包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原價計算의 理論은 물론 굿텐벨크의 生產理論에 基礎를 둔 原價理論이 이야기되어야 하겠다. 後者가 實物商品生產의 範圍內에서 要素價格만큼의 資材投入의 因果關係를 研究하는 反面에 前者は 會計理論의 本質을 研究한다. 그리고 그 問題의 範圍와 目的 領域은 어느 한 特定企業에서 일어난 原價計算이다.⁵⁾

3.1 貸借对照表論

理解가 잘 안가는 貸借对照表의 “靜的”・“動的” 그리고 有機的理論의 概念을 省略하고 前世紀의 70年代, 80年代에 獨逸의 古典的인 貸借对照表 論議를 처음부터 중요한 發展段階만을 간단히 회고하겠다. 이 論議는 시몬의 “株式會社와 有限公司의 貸借对照表”⁶⁾에 대한 綜合的 說明等에 의하여 유도되었다. 1908년부터 1917⁷⁾ 사이의 슈마텐바하의 여러論文 中에서도 動的貸借对照表는 企業의 올바른 運營을 위한 目的으로써 期間成果의 確定을 그의 任務로 하였다. 이 貸借对照表 任務에 대하여는 그후 굿텐벌크⁸⁾도 強調한바 있지만 나는 統制를 위한 機能에 만족한하여 말하고자 한다.⁹⁾

한 企業 全生涯에 대한 總體的 成果를 期間成果計算으로 分割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收入과 支出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費用과 收益의 잠정적인 計算”으로써 貸借对照表와相通한다고 하였다.¹⁰⁾ 슈마텐바하에 의하면 貸借对照表의 모든 項目은 流動的이라 할수 있으며 그 借邊(Aktiva)은 이미 이루어 놓은 成果(Vorleistung)을 뜻하고 貸邊(Passiva)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成果(Nachleistung)을 뜻한다.

그점으로 貸借对照表는 한 企業의 經濟力 留積의 表現을 意味한다. 合目的 評價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는 動的 貸借对照表는 單一化된 基準이 아니라 여러개의 냥은 原理를 使用한다.

이와같은 原理의 前進的 發展은 코지올(Kosiol)의 去來記帳과 關聯된 콘셉트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코지올은 하나의 綜合的이고 閉鎖된 簿記, 原價, 評價 그리고 貸借对照表理論에서 이 原理의 開發에 努力한다. 코지올은 貸借对照表의 모든 對象을 本源的인 取得價로 記錄할 것을 주장하고 순수한 取得價格計算에 의한 期間成果算出과 期間成果의 使用을 明確하게 分離하려고 한다. 貸借对照表로서 企業의 實質資本 保存問題를 解決하려는 試圖는 成取한 利益과 그에 相應하는 可處分 利益을 混沌하게 한다. 여기에 同時

의 利益處分計算을 貸借對照表 外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와는 反對로 슈미트¹²⁾는 實物的 成果計算을 위한 그의 貸借對照表 콘셉트에서 "相對的인 價值 保存을"¹³⁾ 위하여 利益配當의 禁止裝置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目的을 한 企業의 相對的인 生產能力은 그 國民經濟內에서 保存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슈미트는 現在買入價格 即 決算時點에 有效한 市場價格에 의한 評價原則을 通하여 可處分利益의 算出을 피하려 했으며 그렇게 되면 企業의 實體의 增加를 뜻하게 된다. 이 原則에 의하면 架空利益의 配當은 피하게 될 것이다.

한 會計시스템내에서 成果算出과 成果使用의 任務를 充分히 解決할 수 있느냐 그리고 "期間利益에는 内容의으로 또 本質의으로 어떤것이 内存하고 있으며 名目的인 購買力, 實體의 購買力 또는 特別한 企業의 實體 중에서 어느것이 더 중요하나"¹⁴⁾等에 대한 論爭은 바로 獨逸의 經營經濟學에서 20年代初부터 그 당시의 貨幣價值의 不安定 때문에 야기되었었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經營成果 算出과 基本의 會計制度를 物價가 上昇하는 時期에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는 問題는 오늘날까지 (全世界的으로) 그必要性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貸借對照表와 特히 企業利益 算出에 影響을 미치는 貨幣價值變動에 알맞는 會計制度의 模索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애당초 利益이 생기기 以前에 어떤 資產이 한 企業内에 둑어져 있어야 하느냐는 問題에 答하는 立場에서 그 解答은 企業의 資本과 物的 實在를 根據로 하여 資產을 測定하여야 하기 때문에 過去志向의인 資產과 資本概念의 기준에서 資本保存 또는 企業實在保存 콘셉트가 發展하였다.

美國에서 "Current Purchasing Power Accounting"이나 "General Price-Level Accounting"이라고 불리워지는 實質 貨幣資本保存 콘셉트도 지금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方法은 貨幣價值切下에서 오는 名目 資本의 實質價值 減少를一般的

인 購買力 인덱스를 利用하여 구제하고자 한다. 이와 비슷한 方法을 이미 1921年 슈마텐바하가 "動的貸借对照表"에서나 다른 論文에서 勸告한 바 있다.

이 方法은 때때로 美國의 公認會計士에 의하여 이야기된 바도 있으나¹⁵⁾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of Financial Accounting Stadards Board 規定에 어긋난다고 하여 취소되었다.

그 外에도 獨逸經營經濟學에서는 슈미트(Schmidt)가 創案한 "相對的" 實質保存方案에서 派生한 여러가지 實質保存方案이 論議의 초점이 된적이 있다. 이때 實質保存을 어떤 觀點에서 보느냐에 따라 발브(Valb)와 젤드마하(Geldmacher)는 "再生產的"으로, 콤파펠드(Sommerfeld)는 "改善的"으로, 하세나크(Hasenak)는 "能力에 相應"하는 또는 純實質保存이란 생각이 서로 論議되었다. 비록 表現과 그 觀點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論議에는 "하나의 特定한 경우에 따라서는 負債가 包含된 資產項目의 구체적인 實物의 集合體란 意味로써 實質인 企業資產¹⁶⁾이라고 보는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反面에 어떤 資產項目의 集合體를 期初와 期末에 比較할 때에 같다고 볼수 있느냐는 데에는 서로 다른 意見이 있다. 即 他人資本을 어떻게 考慮하느냐는 問題들이다.

3.2 原價計算과 原價理論

두번째로 獨逸經營經濟學이 原價와 從屬의인 理論이란 의미에서의 原價計算과 原價理論의 分野에서 앞서 있다. 總原價를 決定하는 要因이 무엇이냐를 파헤친 슈마텐바하¹⁷⁾의 研究가 여기에 決定의인 役割을 하였다. 그는 操業度와 關聯이 있는 原價와 關聯이 없는 原價는 兩者擇一의 것이 아니라 同時에 發生한다는 것을 認識하였다. 그의 分析에 따르면 그는 固定費를 企業活動을 可能하게 準備하는 데에는 發生하는 費用과 生產活動을 可能하게 하기 위한 費用으로 制限하였다.

여러가지의 製品을 生產하는 企業의 固定費를 各個의 製品에 原因別로 부가할 수 없다는 그의 結論은 計算的인 立場과 版賣價格政策的인 立場에서 서로 다르게 固定費를 分類한것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역시 이와같은 埋論的 發展의 밑바닥에는 슈마텐바하의 恩師 뷔허(Bücher)¹⁸⁾의 理論인 "大量生產의 法則"이 깔려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印刷原價의 例에서 그는 $K = C/m + v$ 라는 모델로써 한 企業의 Output에 固定費와 變動費가 미치는 影響을 說明하였다. 最少한 必要한 生產量과 資本의 規模 때문에, 말크스와 비슷하게, 뷔허도 中小企業이 產業社會로부터 逐出되고 大企業이 發展된다는 것을 說明하였다.

國民經濟學의 收穫의 法則으로부터 原價發展過程인 經營經濟學의 變動費概念을 유도한 슈마텐바하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슈마텐바하가 生產理論의in 考慮에 基礎를 둔 收穫의 法則이란 투고트(Turgot)¹⁹⁾와 투넨(Thünen)이 說明한 農業에서 收穫遞減의 法則에까지 소급된다. 이 法則에서 유도된 分析方法은 비록 거의 모든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인용되었다. 그러나 原價理論의 한 原理가 된것은 비로서 슈타겔벨그(Stachelberg)의 研究에서부터이다. 그의 著書 "純粹한 原價埋論의 原理"²⁰⁾에서는 한 企業內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生產過程을 分析할 수 있기에에는 물론 너무나 높은 程度로 抽象的이다.

國民經濟學者들과는 다르게 經營經濟學의 研究에서는, 적어도 初期에는, 經營經濟學의 生產要素의 結合過程을 完成된 시스템으로 說明하기를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룸멜(Rummel)은 1930年에 이미 "統一原價計算"²²⁾의 骨格이 담긴 論文²¹⁾을 發表하여 原價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의 計算方向을 제시하였다. 룸멜은 原價를 時間에 比例하는 原價와 生產量에 比例하는 原價로 分類하였으며 時間에 比例하는 原價는 生產量의 立場에서 보아 固定的이며 生產量에 比例하는 原價는 生產量과 線型的인 函數關係에 있다 보았다. 그의 "比例性의 法則"은 原價와 그에 作用하는 影響力이

線型法則에 의하여 說明될 수 있는 依存關係에 있을때에 限하여 計算이
可能하다는 前提를 하고 있다.²³⁾

룸멜은 原價高와 原價變動에 作用하는 影響力を 生產을 위한 消費, 消費
의 評價, 時間的 操業度, 製品別 生產의 強度나 機械別 負擔程度, ロス의 크
기, 休息制度 等으로 區別하였다. 그후 굿텐벨크는 다섯개의 "原價에 影
響을 미치는 重要 要因"²⁴⁾으로 生產要素의 質, 操業, 要素價格, 企業의 規
模와 生產프로그램이라고 말하였다. 原價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의 計算目
的是 評價된 要素消費를 組織的으로 分析하는데 있다.

이 分析에서는 우선 다른 要因들은 固定的이라고 가정하고 個個의 要因
이 原價高에 作用하는 바를 고립시켜서 하나씩 研究한다. 이 影響力要因의
計算은 슈테번스 (Stevens) 와 할 (Hall)²⁵⁾의 研究에서 特히 獨逸鋼鐵工業
에 이바지한바 크다.

二次大戰後 굿텐벨크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獨逸에서 오랫동안 支配的이던
經營經濟學의 論議가 完成된 生產理論과 原價理論으로 發展되었다. 그의 三
卷으로된 "經營經濟學의 原理"의 第一卷이 "生產理論"²⁶⁾인바 이는 國民
經濟學의 生產理論과 原價理論의 補完의 開發을 通하여 經營經濟學에서 開
發한 理論의 기틀내에 調和시킨것이 特色이다. 이 굿텐벨크의 先驅者的
力量은 國民經濟學의 收穫의 法則의 解決과 그의 檢證에 있다. 그의 理論의
인 콘셉트의 重點은 여러가지 生產要素의 結合들 간에 生產性의 關係를
提示한 것이다. 처음에 그는 消費函數의 理論을 發展시켰으며 그 消費函
數는 한 生產施設에서 生產된 製品單位當 消費한 生產要素와 그 生產施設
의 技術的 能力 사이에 存在하는 函數的 關係를 說明하며 이 函數關係가
바로 生產函數의 基本이 된다. 生產施設別 生產要素 消費를 個別的으로
把握하고 生產要素의 利用強度 (Intensitätsgrade)의 影響을勘案함으로써
굿텐벨크는 生產函數의 한 結合體를 여러개의 個別函數로 分離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를 綜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주어진 生產強度 (Intensität)

에서 個個의 生產施設마다 受用函數의 線型性을 찾아내는데 成功하였다. 따라서 總費用函數는 이들 生產施設別 費用의 和와 해당 企業의 固定費用總合計이다. 이 理論에 添加的으로 グテンベル크는 操業度 變動時에 適應過程의 理論을 發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原價理論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企業能力의 測定問題와 그 能力의 任意的인 決定問題는 未解决로 남아 있다. 또한 이 問題들은 複數製品을 生產하는 企業의 경우 單一製品을 生產하는 企業처럼 グ텐ベル크의 "計劃均衡의 法則"에 의하여 解決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問題 또는 이와 類似한 問題를 解答하기 위하여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投資論이 開發되었다.

우선 앞서 말한 原價理論의 發展의 소급적 효과를 간단하게 說明하고자 한다. 50年代의 直接原價내지는 限界原價計算의 發展으로써 流動的 限界計劃 原價計算은 만일 原價理論의 理論의 基礎가 없었더라면 생각할 수 도 없다. 個別原價와 比例的 總原價로서 構成된 單位原價와 固定的이라고 假定한 版賣價格과의 差인 公현이익에 의한 計算은 分析的인 原價計劃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 모든 原價部別로 問題를 說明해 준다면가 操業度 變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分析的 研究의 缺陷은 今世紀初에 說明되어진 슈마텐바하의 "限界原價의" 考慮나 그와 비슷한 룸벨의 생각이 — 그는 여기서 부록—原價計算制度를 말했다 — 그當時 實務界에서 實現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4. 獨逸과 美國에 있어서 經營經濟學 分野別 發展의 比較

지금까지의 獨逸 經營經濟學의 고립적인 觀察을 끝내고 앞으로는 特히 二次大戰後 獨逸과 美國 사이에서 이루어진 相互交流가 있었던 分野에 대

하여 개괄적으로 說明하고자 한다. 우선 生產理論과 原價理論에서 投資論으로의 連結을 말하고자 한다.

4.1 投資論

獨逸의 投資論은 오지리와 美國의 投資理論의 結合과 原價計算論에서부터 生成하였다.

資本理論의 論爭은 20世紀初에 크라크(Clark)와 봄•바벨크(Böhm-Bawerk) 그리고 나이트(Knight)와 하이에크(Hayek) 사이의 學問的 見解의 対立으로 特徵지어 지는데 그 論爭點은 生產要素로서의 資本의 測定과 定義決定 이였다. 奧地利學派와 그의 移民者인 룸즈(F. & V. Lutz) 같은 사람은 資本을 그 生產活動期間을 決定하는데에 收穫의 量을 成長期間과 관계가 깊은 나무를 例를 들어 說明하려고 하였다. 平均的 生產活動期間의 用語에 대한 심한 批判끝에 그리고 그와 關聯된 단 하나의 數值로 壓縮시키는 問題를 생각한 후에 나무의 例를 포기하고 그의 理論의 時間的 構造에 重點을 두었다.

볼딩(Boulding)²⁸⁾은 時間概念을 하나하나 個別的 特性을 지닌 投資의 時間的 간격에서 유도하여 얻어 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時間的 간격이란 그는 收入과 支出의 時間中心(Zeitzentren)의 差異로 定義하였다.

이같은 資本理論의 問題를 다룸과 同時に 다른 한편으로는 固定資產減價償却에 올바른 方法에 對한 研究가 經營學의 投資論의 出發點이었다. 올바른 減價償却과 그 副產物로서 한 固定施設의 經濟的 耐用期間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年代와 30年代에 호텔링(Hotelling), 로스(Roos) 그리고 프라인라이히(Preinreich)가 開發한 模型은 땐 것이 아니라 當該投資對象의 資本現價이다.

사실상 이것이 대체 투자문제의 分析을 다룬다는 見解를 가지고 프라인리

하는 減價償却理論의 認識을 投資論과 연결을 지었다. 新投資에도 代替投資에서와 마찬가지의 評價基準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確信에서 알히안 (Alchian)은 資本理論과 減價償却 研究에서 얻은 結果를 綜合하여 投資에 統一的인 理論을 정립시켰다.³⁰⁾

많은 投資可能性들 중에서 어느 投資가 가장 有利한 것인가는 問題를 集中的으로 다루는 範圍에서는 生產論과 投資論의 關係는 처음에는 무시되었다. 投資論이 生產理論의in 考慮와 區別되었다는 重要하고도 科學的으로 재미있는 現象은 投資意思決定의 效果의 長期性이라는 것이다. 生產論은 그 전통적인 形態에서 단 한 期間의 最適 生產量과 生產條件만을 分析한다. 그와는 달리 投資論은 生產論에서 이루어진 意思決定을 그대로 既定事實로 보고 그 事實위에 最適의 投資프로그램과 한 施設의 最適이 經濟的 耐用年數를 決定한다. 따라서 이 두 理論은 既定事實로 定해서는 안되는 것을 既定事實로 定하기 때문에 部分的 解答 (Teillösungen) 밖에 주지 못한다. 投資論과 生產論 사이에 必要不可缺한 교량은 グテン벌그가 生產論에 經營手段 (Betriebsmittel)의 消費函數理論을 정립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生產要素가 時間의으로 같은 能力を 가진다는 假定을 전복시켰다. 따라서 장내의 耐用可能性을 감안하면서 현시점에서 經營手段의 使用強度와 技術進步 問題를 分析할 수 있게 되었다.³⁰⁾

이미 말한바와 같이 投資意思決定이란 資本을 長期間 면 장래까지 묶어 놓기 때문에 投資論에서는 장래 不確實性의 問題도 야기된다.

獨逸에서는 킬거 (Kilger)³¹⁾는 물론 슈나이더 (E.Schneider)³²⁾는 隘路值 (Kritische Werte)를 求함으로써 個別投資 分析에서의 不確實性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실상 投資의 값이 隘路值의 어느쪽에 있느냐의 確率의 判斷은 이 경우 投資者의 자유에 맡기었다. 이 不確實性의 問題를 解決하는 다른 方法論的 方案은 장래의 不確實성을 그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確率分布에서 포착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헬츠(Hertz)³³⁾의 危險分析에 대한 研究를 들수 있는데 씨무레이션 方法을 投資計劃의 分析道具로 썼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投資論의 發展過程을 附加條件의 考慮없이 알아 보았다. 한 企業의 存在 條件으로 財務的 均衡의 維持를 구텐벨크³⁴⁾가 明確하게 주장함으로써 投資豫算의 理論이 成立하였다. 그런데 이 理論의始作은 쳐안스(Charnes), 쿠퍼(Cooper)와 미러(Miller)³⁵⁾에서 비롯되었다. 本人自身도 1962年에 最適投資豫算의 計劃에 対한 論文³⁶⁾을 發表하고 投資需要와 財務的 支援可能性과의 相互依存 關係를 찾아내어 여기에서 야기되는 問題들을 計劃分野의 現代的인 方法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投資豫算이란 表現은 데ن(Dean)³⁷⁾의 資本豫算이란 用語와 區別하고서 의식적으로 擇한 것이다.

後者는 세가지의 缺點을 가지고 있다. 資本費用이 内部 利子率로 부터의無關性이라는前提이고, 内部利益에 대한 再施備假設(Wiederanlagehyphthese)에 그 根據를 두고 있으며 資本需要와 供給의 均衡은 처음 期間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論者가 論題로 제기한 投資豫算是 모든 計劃期間 동안 企業의 財務的 均衡이 이루어진 投資對象과 金融形態와 結合된 것이다. 그리고 이 均衡은 同時に 決定된다.

1963年까지도 確實한 狀況下의 投資豫算의 理論을 不確實한 경우에까지一般化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하였다.³⁸⁾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에 대하여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다. 投資資本의 償還期間을 한 投資豫算의 危險의 尺度로 說明함으로써 또한 Chance constrained 方法의 能力を 재검토하면서 不確實性下에서의 最適投資計算의 計劃을 研究하였다.³⁹⁾ 장래에 投資可能性은 이미 알고 있으나 그 投資가 實現되어질 수 있는 企業 環境은 不確實하기 때문에 融通性있는 投資計劃의 理論을 開發시켰다. 獨逸에서 이

理論이 成立하는데는 不完全한 資本市場에서 資本豫算의 融通性 있는 計劃問題 解決을 위한 모델을 作成한 학스 (Hax)⁴⁰⁾와 라욱스 (Laux)⁴¹⁾에 決定的인 공이 있다.

사실상 不完全한 資本市場이 存在한다는 根本的인 理由에서 獨逸의 經營經濟學에서는 投資豫算의 理論이 美國에서의 그 理論의 發展과는 현저한 差異가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모디그리아니 (Modigliani) 와 밀러 (Miller) 의 論文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⁴²⁾에 의하면 計算的 利子率에 있어서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데 獨逸의 立場에서 問題가 提起되었다.

完全한 資本市場의 Modigliani-Miller 命題의 影響을 받아 무엇보다도 獨逸의 企業金融論은 Capital-Asset-Pricing-Models 方向으로 發展되었다.

그러나 論者는 이 理論이 現實에 맞지 않은 "理想的 市場條件"⁴³⁾의 假定 때문에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리라고 確信한다.

4.2 企業組織論

60年代까지 獨逸과 美國에서 앞에 말한 第二의 分野에서 經營經濟學의 理論이 매우 相異하게 發展하여 온것을 관찰할수 있다. 그것은 바로 企業組織論이다. 우선 초창기에는 서로 다른 研究方向에 어떤 連結을 지어보려고 많은 努力を 했다.

理論的인 独自性은 實際的인 出發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合目的的이고 合理的인 体制인 企業에서 任務完遂를 위하여 가장 우수한 方法과 構造가 要求된다. 現實은 間接的으로 行動할 수 있

는 方案이 제시 될것을 要求한다。 따라서 美国에서는 “科学的管理法”과 行政理論과 매니지먼트가 그리고 独逸語圈內에서는 経営經濟学의 組織論이 바로 그것이다。

生産技術의in 部門에서 복잡해지는 技術과 成長하는 企業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生產 프로그램의 拡大를 감안한 生產分野의 構成이 19世紀末까지의 美国의 研究에 出發点이었다。 무엇보다도 科学的 管理를 하나의 独自의in 專門分野로 開拓한 테일러⁴⁴⁾의 先驅者的 業績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특히 合目的的인 分業의 問題와 人間勞動能力의 組織的인 向上可能性과를 比較하였다。

그와같이 發達된 組織論의 原理는 특히 制度의 機能的 傑作이라고 알려졌다。 테일러 외에도 科学的 管理의 發展을 위하여 노력한 学者들로 갈부레 (Gilbreth)⁴⁵⁾ 칸트 (Gantt)⁴⁶⁾, 그리고 에메슨 (Emerson)⁴⁷⁾ 등을 들수있다。

技術의in 考慮가 支配하는 研究에 대한 反作用으로서 “Human Relation” 運動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운동의 보다 많은 發展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美国의 組織理論의 論議에 대단한 影響을 주고 있다。 企業의 運營이란 첫째로 勞動心理, 社會心理的 또는 社會學의in 問題로 보았다。 經濟的인 人間의 社會機能에서 人間이 가장 重要視 되었다. 그래서 本來는 다른 의도가 있었지만 科學的 管理에 대한 直接的인 反抗으로써 Western Electric Company의 그有名한 호손공장 研究가 제시되었다. 메이요 (Mayo)⁴⁸⁾, 뢰스리스벨거 (Roethlisberger)와 딕손 (Dickson)⁴⁹⁾는 生產性과 勞動條件의 質과는 아주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行動科學의 매니지먼트의 入口를 찾았다.

美國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론과 매니지먼트理論은 불란서 사람인 패울 (Fayol)⁵⁰⁾의 思想위에 大部分 이룩되었다. 企業의 下部 次元인 現場을 다루는 科學的 管理와는 달리 패울은 企業管理 全分野에 重點을 두었다. 이 企業管理를 위하여 그는 分業과 權威와 그리고 原理에 대한 一連의 原則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特히 業務分擔의 統一的 原則을 組織理論的 문헌에 자주 인용된다. 그외에도 重要한 공헌을 한 사람들은 울비크 (Urwick)⁵¹⁾, 구리크 (Gulick)⁵²⁾ 그리고 무네이 (Mooney)⁵³⁾ 들이다. 그들은 組織問題가 企業運營의 上部 課題와 깊은 連關을 가지고 다루었으며 代表者, 調整, 統制 그리고 部署組織에 대한 基本原則을 세웠다. 獨逸에서는 이 經營經濟學의 組織論이 뒤늦게 그리고 다른 觀點에서始作되었다. 美國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研究와는 反對로 獨逸의 組織論은 심하게 制度化 하고 形式化한데 그 特色이 있다. 그 研究는 企業의 全體的인 業務에서 부터 出發하였다. 어떤 特定 基準에 依하여 全體業務를 部分業務로 區分하는 것이 아직 本來의 組織問題 以前에 것이라고 보았던 反面에 이것이 業務合成의 다음 段階라고도 보았다. 部門業務의 綜合 후에 發生하는 復合體 即 各 部門들은 그 후에는 業務擔當者인 人間에 의하여 배치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최초의 "企業組織"에 대한 러꾸레 (Le Catre)의 1925年에 처음 이룩한 研究와 나란히 獨逸의 組織論이 오늘날까지 影響을 받고 있는 20年代와 30年代의 노드식 (Nordsiek)⁵⁴⁾와 니클리쉬 (Nicklisch)⁵⁵⁾의 研究를 이야기 않을 수 없다. 1934年에 노드식은 그의 著書 "企業組織原論"을 한 抽象的이고 演繹的인 筆致로 썼다. 組織이란 그에 의하면 效力を 發生하는 그리고 企業을 形成하는 規則의 制度로, 그리고 組織의 意義는 最高의 企業任務에 의하여 주어졌다고 보았다. 그후 이와같은 理論을 代表하는 學者는 우리히 (Ulrich)⁵⁶⁾와 코시올 (Kosiol)⁵⁸⁾이다.

美國에서도 組織論이 發展하는 동안 理論的인 出發點을 마련하였으며 하나의 完成되고 隣接 科學의 原理에도 基礎를 둔 組織論의 으로 說明力이 있는 시스템을 獨逸의 組織理論과 交流를 맺으려고 努力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한가지 말한다면 計量經濟學者에 의하여 研究된 組織論이 微視經濟學的 理論이나 그 根幹은 마샥 (Marschak), 라드너 (Radner) 와 베그만 (Beckmann)⁵⁹⁾ 등에 의하여 50 年代에 開發된 팀 理論이다. 이 팀 理論은 한 企業에 있어서 意思決定은 完全한 情報下에서는 단 한 個人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古典的인 理論 以上으로 研究되었다. 이 팀 理論은 同一目的과 同一利害 關係를 가진 意思決定 主體의 大多數가 人이 不完全한 情報下에서 協力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팀 理論의 모델의 目的是 個別 팀 成員에게 觀察과 意思疎通과 意思決定 規定을 부여하여 팀 選好函數의 最適化를 琢磨하는 것이었다. 最近의 研究에서는 個別 成員들이 目的과 利害關係의 一致性에 대한 前提를 달리하였다. 팀 理論의 콘셉트는 不完全한 情報下에서 資源分配決定의 研究에 接近하여 最適行動規範의 範圍를 초과하는 팀 成員에 最適의 刺激 決定의 問題도 研究하였다. 또한 行動志向의이고 自制力志向의 組織論을 들수 있다. 社會學的 技術的 制度는 다만 주위환경에서 特定한 前後關係의 여려 要因들이 機械的으로 結合하는 데에서 變化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에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높은 組織的 議見을 가지고 現實的인 前後要因들에 대하여 特別한 지각을 가진 積極的인 人間에 의하여 變化된다는 생각이 行動科學志向의 研究에 出發點이다. 어찌한 組織構造와 制限條件들이 가장 效果的인 立場에서 組織의 構造와 權限이 相互依存 關係를 說明하여 주는것이 組織論의 으로 본 自制力이다.

또한 한 組織을 이루고 있는 成員들의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組織構造에 대하여도 說明되어져야 하겠다. 美國에서는 시카고大學의 브라우 (Blau) 와 하이데부란드 (Heydebrand)를 中心으로한 研究組가 權限과 組織構造의相互 關聯性에 대하여 實驗的으로 얻은 假說을 토대로 방대한 研究를 하였다. 自制力理論의 古典的인 管理理論 시스템理論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술적인 意思決定理論 같은 콘셉트와의 多樣한 關聯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립적으로 이루어진 研究에서 의미있게 結合하는 보다 強力한 統合의 인 方向을 제시하는 것이 現代 組織論의 任務임이 또한 밝혀졌다.

4·3 마케팅理論

이理論도 역시 美國과 独逸에서 서로 다르게 發展한 마케팅의 理論이다. 1955年 굿텐벨크의 著書 “經營經濟學 原理” 중 “販売編”이 發表되기 以前에는 独逸語로된 마케팅理論은 서술적이고 해설적인 研究에 의하여 特徵지어졌다。商科大学의 設立과 함께 成立한 商學 (Handelsbetriebslehre)은 商業企業의 業務, 商品, 商業기관에 대하여 種類別, 形態別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처음에는 그 研究對象이 商企業에 限定되어 있었으나 그후에는 商品과 用役을 消費者와 生產者에게 販売하는데 관련된 모든 企業家的 行為로 拡大되었다。이 販売論 (配給論이라고도 한다 : 訳者註)의 研究對象은 해당 企業의 經濟的 活動의 最終段階인 分配라는 의미에서 販売였다。本来의 販売論은 微視經濟的 道具인 價格理論과 파라메터理論의 集中的인 応用과 企業의 立場에서 본 意思決定志向의 인 考慮의 組織的인 導入에 의한 굿텐벨크의 研究에서 그 頂點에 이르렀다。여러가지 市場形態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需要函數의 理論을 成立함과 同時에 어떤 インストルメント (Instrument)가 주어진 需要函數를 變形 시킬수 있겠느냐는 問題를 다루었다。굿텐벨크는 販売論에서 企業의 販売量을 決定하는 要因이 무엇이었냐를 생각했고 販売政策의in 道具의 어떠한 最適結合에 의하여 企業의 販売政策의 콘셉트를 市場에서 実現할 수 있느냐를 研究하였다。

이때 그는 販売方法, 價格政策, 製品構成과 広告를 分離하여 생각하였다。특히 그의 広告論에서 굿텐벨크는 오랜 微視經濟的 広告理論을 数学的 프로그래밍 道具와 結合하는데 成功하였으며 게임理論에서 最適의 広告計劃을 決定하는 새로운 說明을 하였다。

美國의 문헌들은 “인스트루멘탈 어푸로치에서” 実用主義의인 区分으로 4P를 生産, 販売促進, 価格 그리고 場所를 이야기한다. 단企業이 그의 競争者와 区別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企業, 市場 그리고 競争構造를 감안한 最適의 마케팅믹스를 이룩하는데 이 4P가 重要한 役割을 한다. 이 静態的인 마케팅믹스 콘셉트는 푸로 닉트라이후 싸이클마다 販売에 있어서 새로운 補完을 경험한다. 내 생각에는 푸로닉트 라이프싸이클의 해당 한계마다 必要한 变動을考慮한 動的 装置를 마케팅믹스에 세우는 것이 옳을듯하다.

5. 経営経済学의 当面問題

投資論 그리고 組織論 또한 마케팅 理論에 대하여서도 몇몇 分野別로 대략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 分野는 적어도 50年代까지는 独逸과 美国이 独自의으로 發展하여 왔으며 60年代 이후에야 特히 独逸에서 学文的 交流에 의하여 서로 調和시키고 統合하여 보려고 노력하였다. 独逸의 特殊한 経済的 여건 때문에 이 곳 経営経済학이 近來의 다음과 같은 問題를 다루고 있다.

5.1 우선 企業에 있어서 労動者의 利害關係에 대한 問題이다.

그 理由은 企業理論에서 새로운 理論의 發展이다.

单一의인 企業意志의 形成과 唯一變數의 目的시스템에서 出發하는 伝統의인 企業理論은 그 体制下에서 所有者인 企業家와 그의 利益外에는 다른 意思決定主体의 意見이 考慮될 여지가 없었다.

이 機械의이고 器具의인 企業觀은 生產要素를 結合하는 経営過程에서 労動者를 많은 生產要素中의 하나로 보았다.

비로서 近來의 研究에서야 從業員과 그들의 目的을 經營經濟的 理論의 여러 分野에서 考慮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特히 이와 같은 問題가 刺戟 貢獻 理論, 勞使協議理論 그리고 機構的 機能의 테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i) 理論에 따르면 企業이란 組織의 한 特殊形態이며 組織의 成員들이 目的設定과 그 實行過程에서 그들의 서로다른 利害를 貫徹하려는 目的志向의인 시스템이다. 独逸에서 勞動者는 經濟政策의인 基本原則 決定에 따라 그들의 権益을 1972年の 企業基本法 (Betriebsverfassungsgesetz) 과 1976年の 勞使協議法 (Mitbestimmungsgesetz)에 의하여 企業協議會 (Betriebsrat) 的 範圍內에서 그들의 権益을 代表할 수 있으며 勞動者代表가 監查役이 될수 있다. 이러한 協議權의 法의인 保障은 独逸의 經營經濟學者들이 이러한 問題點들을 理論의인 콘셉트에 考慮해야 할 必要性이 생겼다. 勞動者 集團이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個人的의 問題에 대하여 보다 많은 実權을 가지게되고 그에 따라 企業의 目的設定과 意思決定 過程에 큰影響力を 發揮하게 되었기 때문에 意思結定志向의인 研究에서는 이 點을 考慮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모든 法律의이고 組織의인 規定의 綜合으로서의 会社基本法 (Unternehmensverfassung) : 굿텐 벨크가 말하다싶이⁶²⁾ “意志形成의 主軸”의 모든 相互作用의 綜合體로서의 企業基本法을 經濟學的 側面에서 分析하자면 역시 새로운 勞使關係를 다루지 않을수 없다. 이에 대한 研究의 課題는 複數의인 社會制度에서 現實과 法의 基準을 把握할 수있는 測定方法을 개발적이고 經驗적으로 確認한 樣相을 企業間에 比較하고 새로운 勞使關係로 인하여 일어나는 制限과 効果를 確

定 짓는 일이다. 더나아가서는 独逸의 経営經濟学者에게는 従業員의 内容과 構造에 대하여 研究 하여야 할 必要性이 점점더 커진다. 또한 労動의 人間化 (Humanizierung der Arbeit) 문제가 큰 意識를 가진다. 労動의 物理的 条件이라던가 肉体的 負担의 減少의 可能性이나 労動生活에 있어서 社会的 物理的 改善에 대한 建議 等이 -나는 말한다 다만 作業拡充, 作業充実, 交換作業 그리고 部分自治 労動集団의 戰略을 말한다- 研究되었다. 또한 위와같은 또는 類似한 方案이 従業員의 成果 即 労動生產性과 企業目的 達成에 미치는 影響 等을 전에도 그려하였지만 앞으로도 批判的으로 檢証하여야 할것이다.

5.2 모델의 経験的 檢証

모델의 檢証이 独逸의 経営經濟学에서 앞으로 더 研究하여야 할点이다. 経験的 檢証에 대하여는 한편으로는 労使協議制와 企業基本法의 分野에서, 비텐 (Witten)⁶³⁾은 企業政策에 従業員이 미치는 影響을 重点적으로 研究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OR 모델의 檢証分野에서 내가 내研究所에서 開發한 “会社發展의 Bonn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은것이 있다.

1960年부터 1979年까지 製造業에 従事하는 400余 株式会社로부터 把握한 데이타에 의하여 作成된 行動方程式과 그 方程式의一次的인 整理作業이 完成되었다고 볼수있는 企業에 대한 우리들의 数理經濟的 総合모델은 企業發展의 說明과 予測에 있어서 従來의 方法보다는 몇배 優秀하다는 것이 証明되었다.

5.3 企業에 있어서 情報處理

企業發展의 預測은 우리를 結果的으로는 第三의 分野로 引導한다. 이 分野는 企業의 情報處理로서 經營經濟學에서는 近來에 要求되는 分野이다.

一次 石油危機 以後 그리고 一般的으로 增加하여가는 經濟的 政治的 危機徵候에서 始作하여 企業은 그의 長点과 弱点을 分析하고 国内 國際市場에서 問題解決을 위한 機會와 危險을 認識함 것을 우리의 經濟秩序에서 심하게 強要 당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所謂 早期警報情報의 形態로 보이지 않는 危險을 그때그때 알려주고 또 그것을 分析하는 하나의 特殊한 種類의 情報시스템으로써 早期警報制度가 經營經濟學의 研究對象으로 되었다. 그外에도 該當 業務를 企業部署의 알맞는 水準에서 戰略的 自治的 그리고 能動的인 計劃機能과 運營機能에 맡기는 管理情報制度 (MIS) 가 研究되었다.

6. 結論

經營經濟學이 하나의 經驗科學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마다 独自的으로 다시 말해서 그나라 問題를 取扱하는데나 說明하는데나 問題設定의 構造에 있어 相異함은 놀랄바가 아니다.

經濟的 空間의 交叉와 增加하여가는 去來의 國際化 때문에 역시 1950年 以後에는 独逸과 美國에 있어서의 經營經濟學의 發展過程과 發展水準을 比較할 必要性이 있다. 이 研究는 兩國 經營學의 比較優位를 찾아내어 이로서 綜合的인 經營學에 도달하는데 그目的이 있다. 또한 이 研究가 企業에 - 점점 커지는 不確實性의 立場에서 - 全世界的으로 밀어 닥치는 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싶다.

- 1) Vgl. Gutenberg, E.: Betriebswirtschaftslehre als Wissenschaft, Kölner Universitätsreden 18, 3. Aufl., Krefeld 1967
- 2) Vgl. Schmalenbach, E.: Buchführung und Kalkulation im Fabrikgeschaft, Deutsche Metallindustrie-Zeitung, 18. Jg., Leipzig 1899
- 3) Vgl. Gutenberg, E.: Betriebswirtschaftslehre als Wissenschaft, a.a.O., S. 19-22
- 4) Vgl. Seicht, G.: Die kapitaltheoretische Bilanz und die Entwicklung der Bilanztheorien, Berlin 1970, S. 51
- 5) Vgl. Dellmann, K.: Zum Stand der betriebswirtschaftlichen Theorie der Kostenrechnung, in: ZfB, 49. Jg. (1979), S. 319-332
- 6) Simon, H.V.: Die Bilanzen der Aktiengesellschaften und der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1. Aufl., Berlin 1886
- 7) Vgl. Schmalenbach, E.: Die Abschreibung, in: ZfhF, 3. Jg. (1908/09). S. 81-88; ders.: Über den Zweck der Bilanz, in ZfhF, 5. Jg. (1910/11), S. 379-388; ders.: Grundlagen dynamischer Bilanzlehre, in: ZfhF, 13. Jg. (1919), S. 1-101
- 8) Vgl. Gutenberg, E.: Bilanztheorie und Bilanzrecht, in: ZfB, 35. Jg. (1965), S. 19
- 9) Vgl. Albach, H.: Grundgedanken einer synthetischen Bilanztheorie, in: ZfB, 35. Jg. (1965), S. 22
- 10) Münstermann, H.: Bilanztheorien, dynamische, in: HWR, Stuttgart 1970, Sp. 250
- 11) Vgl. Kosiol, E.: Formalaufbau und Sachinhalt der Bilanz. Ein Beitrag zu der Bilanztheorie, in: Wirtschaftslenkung und Betriebswirtschaftslehre,

- Festschrift für E. Walb, hrsg. von K. Bott, Leipzig 1940, S. 103-132; ders.: Bilanzreform und Einheitsbilanz, 2. Aufl., Berlin und Stuttgart 1949
- 12) Vgl. Schmidt, F.: Bilanzwert, Bilanzgewinn und Bilanzumwertung, Berlin 1924; ders.: Gewinn und Bilanzwert, in: ZfB, 3. Jg. (1926), S. 813-825 und S. 906-920; ders.: Die Organische Tageswertbilanz, Nachdr. d. 3. Aufl. v. 1929, Wiesbaden 1951
 - 13) ders.: Die organische Tageswertbilanz, a.a.O., S. 395
 - 14) Moxter, A.: Bilanzlehre, Wiesbaden 1974, S. 344
 - 15) Vg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inancial Reporting in Units of General Purchasing Power. Propose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tanford 1974
 - 16) Schildbach, T.: Geldentwertung und Bilanz, Düsseldorf 1979
 - 17) Vgl. neben Anm. 2) auch Schmalenbach, E.: Grundlagen der Selbstkostenrechnung und Preispolitik, 5. Aufl., Leipzing 1930
 - 18) Vgl. Bücher, K.: Das Gesetz der Massenproduktion, in: ZfSt, 66. Jg. (1910), S. 429-444
 - 19) Vgl. Turgot, J.: Re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 1766; Thünen, J.H.v.: 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schaft und Nationalökonomie, oder Untersuchungen über den Einfluß, den die Getreidepreise, der Reichtum des Bodens und die Abgaben auf den Ackerbau ausüben, Hamburg 1826
 - 20) Stackelberg, H.v.: Grundlagen einer reinen Kostentheorie, Wien 1932

- 21) Vgl. Rummel, K.: Die Ordnung der Kosten nach ihrer Abhangigkeit von betrieblichen Zeitgroßen, in: Die Betriebswirtschaft, 23. Jg. (1930), S. 33-40 und S. 72-80
- 22) ders.: Einheitliche Kostenrechnung auf der Grundlage einer vorausgesetzten Proportionalität der Kosten zu betrieblichen Größen, 3. Aufl., Düsseldorf 1949
- 23) ebd., S. 18
- 24) Gutenberg, E.: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1. Bd.; Die Produktion, 23. Aufl., Berlin-Heidelberg-New York 1979, S. 348-456
- 25) Vgl. Stevens, H.: Einflußgrößenrechnung. Die Erfassung funktionaler Zusammenhänge in der industriellen Technik unter Anwendung mathematischer Formeln, Schaubildlich-rechnerischer Hilfsmittel und ihre Darstellung in Diagrammen und Nomogrammen, Düsseldorf 1939; Hall, R.: Das Rechnen mit Einflußgrößen im Stahlwerk, Köln und Opladen 1959
- 26) Anm. 24)
- 27) Vgl. Lutz, F.; Lutz, V.: The Theory of Investment of the Fir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1
- 28) Vgl. Boulding, K.E.: The Theory of a Single Investment, in: QJE, 1935, S. 475, ders.: Time and Investment, in: Economica, 1939, S. 197; ders.: Time and Investment - A Reply -, in: Economica, Economica, 1939, S. 440
- 29) Vgl. Alchian, A.: Economic Replacement Policy, RAND Report No. 2-224, Santa Monica 1952
- 30) Vgl. Albach, H.: Zur Verbindung von Produktionstheorie und Investitionstheorie, in: Zur Theorie der Unternehmung, Festschrift zum 65. Geburtstag von Erich Gutenberg, hrsg. v. H. Koch, Wiesbaden 1962, S. 137-203

- 31) Vgl. Kilger, W.: Kritische Werte in der Investitions- und Wirtschaftlichkeitsrechnung, in: ZfB, 35. Jg. (1965), S. 338 ff.
- 32) Vgl. Schneider, E.: Kritisches und Positives zur Theorie der Investition, i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d. 98 (1967), S. 314 ff.
- 33) Vgl. Hertz, D.B.: Risk Analysis in Capital Investment, in" HBR, Jan.-Febr. 1964, S. 95-106
- 34) Vgl. Gutenberg, E.: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3. Bd.: Die Finanzen, 8. Aufl., Berlin-Heidelberg-New York 1980, S. 272 ff.
- 35) Vgl. Charnes, A., Cooper, W.W. and Miller, M.H.: Application of Linear Programming to Financial Budgeting and the Costing of Funds, in: J. of B. 1959, S. 20-46
- 36) Vgl. Albach, H.: Investition und Liquidität, Wiesbaden 1962
- 37) Vg. Dean, J.: Capital Budgeting, New York 1951
- 38) Vgl. Moxter, A.: Lineares Programmieren und betriebswirtschaftliche Kapitaltheorie, in: ZfbF, 15. Jg. (1963), S. 285 ff.
- 39) Vgl. Albach, H.: Rentabilität und Sicherheit als Kriterien betrieblicher Investitionsentscheidungen, in: ZfB, 30. Jg. (1960), S. 583-599; ders. und Schuler, W.: Zur Theorie des Investitionsbudgets bei Unsicherheit, Übersetzung von: On a Method of Capital Budgeting under uncertainty, in: Journal of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Bd. 4(1970), S. 208-226
- 40) Vg. Hax, H.: Investitionsentscheidungen bei unsicheren Erwartungen, in: Hax, H. (Hrsg.), Entscheidung bei unsicheren Erwartungen, Köln und Opladen 1970, S. 129

- 41) Vgl. Laux, H.: Flexible Investitionsplanung, Opladen 1971
- 42) Modigliani, F. und Miller, M.H.: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in: AER, Vol. 49 (1959), S. 655 ff.
- 43) Moxter, A.: Optimaler Verschuldungsumfang und Modigliani-Miller-Theorem, in: Aktuelle Fragen der Unternehmensfinanzierung und Unternehmensbewertung, Kurt Schmaltz zum 70. Geburtstag, hrsg. v. Forster, K.H., Schumacher, p., Stuttgart 1970, S. 128 ff., hier S. 148
- 44) Vgl. Taylor, F.W.: Shop Management, New York 1903; ders.: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New York 1911
- 45) Vgl. Gilbreth, F.B.: Motion Study, New York 1911; ders.: Primer of Scientific Management, New York 1912;
- 46) Vgl. Gauff, H.L.: Work, Wages, and Profits, New York 1911; ders.: Industrial Leadership, New York 1916; ders.: Organizing for Work, New York 1919
- 47) Vgl. Emerson, H.: Efficiency as a Basis for Operation and Wages, New York 1911; ders.: Twelve Principles of Efficiency, New York 1913
- 48) Vgl. Mayo, E.: The Human Problems of an Industrial Civilization, Boston 1933
- 49) Vgl. Roethlisberger, F.J. und W.S. Dickson: Management and the Worker, Cambridge (Mass.) 1939
- 50) Vgl. Fayol, H.: Administration Industrielle et Generale. Bulletin de la Societe de l'industrie Minerale, Paris 1916
- 51) Vgl. Urwick, L.: Scientific Priciples and Organization, New York 1938; ders.: The Elements of Administration, New York und London 1943

- 52) Vgl. Gulick, L.: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
in: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hrsg.
v. Gulick, L. Und Urwick, L., New York 1937, S. 1-47
- 53) Vgl. Mooney, J.D.: 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 New
York und London 1947
- 54) Vgl. le Coutre, W.: Betriebsorganisation, in: Die
Handelshochschule, Berlin 1928, als selbst. Schr.
Berlin und Wien 1930
- 55) Vgl. Nordsieck, F.: Die schaubildliche Erfassung und
Untersuchung der Betriebsorganisationen, 1. Aufl.,
Stuttgart 1931; ders.: Grundlagen der Organisations-
lehre, 1. Aufl., Stuttgart 1934
- 56) Vgl. Nicklisch, H.: Der Weg aufwärts! Organisation, 1.
Aufl., Stuttgart 1920
- 57) Vgl. Ulrich, H.: Betriebswirtschaftliche Organisations-
lehre, Bern 1949
- 58) Vgl. Kosiol, E.: Organisation der Unternehmung, 1.
Aufl., Wiesbaden 1962
- 59) Vgl. Marshak, J.: Towards an Economic Theory of Organi-
zation and Information, in: Modern Organization
Theory, hrsg. v. Thrall, R.M.; Coombs, C.H. und
Davis, R.L., New York und London 1954, S. 187-220;
ders.: Efficient and Viable Organizational Forms,
in: Modern Organization Theory, hrsg. v. Haire, M.,
New York und London 1959, S. 307-320; Radner, R.:
The Linear Team. An Example of Linear Programming
under Uncertainty,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Symposium in Linear Programming, Bd. 1, Washington
1955, S. 381-396; Beckmann, M.J.: Decision and
Team Problems in Airline Reservations, in: Econo-
metrica, 26. Jg. (1958), S. 134-145
- 60) Vgl. Blau, P.M. und Schoenherr, R.M.: The Structure of
Organizations, New York 1971; Heydebrand, W.V.
(Hrsg.): Comparative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Y. 1973

- 61) Vgl. Gutenberg, E.: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2. Bd.: Der Absatz, 16. Aufl., Berlin-Heidelberg-New York 1979
- 62) Vgl. ders.: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1. Bd.: Die Production, 23. Aufl. Berlin-Heidelberg-New York 1979, S. 486 ff.
- 63) Vgl. Witte, E.: Das Einflußpotential der Arbeitnehmer als Grundlage der Mitbestimmung.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in: Die Betriebswirtschaft, 40. Jg. (1980, S. 3-26; ders.: Der Einfluß der Arbeitnehmer auf die Unternehmenspolitik.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in: Die Betriebswirtschaft, 40. Jg. (1980), S. 541-559